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2' 시동

전남도 지난해까지 48% 줄여 올해 100명대 진입 목표 시설 개선 등에 460억원 투입

전남도가 민선 8기 원년인 올해부터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진입, 2026년 교통사고 50% 감축 등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II'를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는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2017년 387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00명까지 줄여 48.3%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로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II' 실행의 밑거름이 됐다.

시즌II 출발점인 올해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고위험 이동

수단 집중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약자 우선 배려 정책 ▲보행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에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경 협업을 통한 대대적 교통 캠페인과 합동 단속, 다각적 홍보는 물론 영업용 차량 집중 안전교육과 화물차 운행 기록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고위험 이동수단 집중관리를 위해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곳에 농기계 사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 발광다이오드(LED) 안전등 부착, 농기계 교통사고 시 즉시 알람 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시책과 함께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 이탈 경보장치 1천 대를 무상 지원한다. 또 걸음이 느린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

스템도 도입해 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에 맞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도 보급한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무인 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보행로 조성사업 등을 지속 확충하고 교차로 조명타워,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사고 위험 정보 디스플레이, 암행 감찰차 등 최첨단 교통 시설물을 시범 도입해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찰청, 유관기관,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라며 "도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남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실행해 도내 사망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꼼치 자원 회복 나섰다

여수 해역에 치어 2500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겨울철 남해안 별미로 알려진 꼼치(물메기) 자원 회복을 위해 2월 말까지 여수 두문포 해역에 치어 2500만 마리를 방류한다. 꼼치는 남해안과 동해 남부해역 수심 50~80m에 서식하며 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연안으로 이동해 해조류 줄기 등에 산란하고 죽는 1년생 어종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억1839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회복 활동에 따라 전남 생산량이 2018년 132t이었던 것이 2020년 330t, 2022년 345t으로 증가 추세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방류 뿐만 아니라 해상 부화장을 설치해 자연 부화·방류를 함께하고 있다"며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방류 품종과 방류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귀농어귀촌인 창업 돕는다...최대 3000만원 지원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 56명 선정 멘토-멘티 결성·제품 개발 등 도움

전남도가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56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여수에서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사진〉

간담회에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전문컨설턴트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를 결성해주고, 함께 참여한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시·군 담당자와 꼼꼼한 사업 추진 및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전남으로의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서면 심사 후 창업 부트캠프에서 1박2일간 세무회계, 비즈니스모델, 농수산업 설계 등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심



층적 창업 자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도시에 비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어

귀촌인에게는 일자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귀농어귀촌인의 역귀농을 방지하고 농어촌 정착을 견인하는 대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원, 산림과수 전정 기술 공유

재배농가 등 참여 현장설명회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본격적인 산림과수 전정·전정 시기를 맞아 '산림과수 재배관리기술 현장설명회'를 열어 수종별 핵심 재배관리 기술과 재배 현장 문제점 해결방안을 지도했다.

현장 설명회에선 과수별 재배 특성 소개와 증식, 식재 방법, 시비, 수형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

지 핵심 재배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연구소 내 보유 자원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함께 해 관리기술 역량을 증진했다. 공무원, 재배농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 설명회는 산림과수 지역 적응성 검정시험을 목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 조성된 토종다래, 뽕은감, 대추나무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재배농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산림과수 재배에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시험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과수 지역 적응성 검정 및 클론보존원, 산지재배시험을 위해 연구소에 토종 다래, 대추나무 등 5개 수종 720그루를 1만6000㎡ 면적으로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임업인과 재배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에 적합한 산림과수 유전자원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청년 인재 육성으로 섬 관광 활성화

3월 20일까지 관광 콘텐츠 공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섬·해양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 관광전문가를 양성하는 '2023 청춘어람 육성사업'을 통해 섬·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춘어람'은 청년이 만드는 어촌관광의 요람이라는 뜻으로 섬·해양 관광상품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청년 관광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하나로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통해 청년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새로운 섬·해양 콘텐츠라는 의미를 담은 '섬명 뉴(Thing New) 전남'이다.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섬·해양 테마여행 코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미식상품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정보 제공 등 전남의 섬·해양 관광 활성

화를 위한 것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입상자 30명에게는 총 2000만원의 시상금과 올해 청춘어람 전문가 양성과정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청년이 전남의 섬·해양 관광 전문 기획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전문가 특강, 선진지 답사, 섬에서 2주 살아보기 등 상품 기획과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후 심화 교육을 통해 청년 참가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관광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전문가·현업 종사자 멘토링과 함께 활동비, 개발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개발된 상품과 콘텐츠가 시·군, 유관기관, 여행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화되도록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자치경찰위, 자립 준비 청년 발굴·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발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을 발굴해 보호하기로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자립기관전담기관 등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전남자치경찰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전남에는 현재 약 650명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이 보호 종료로 자립 준비 청년이 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 청년을 선정하면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